

“올 K리그 우승 후보는 울산·서울”

4개 구단 사령탑 미디어데이 행사
디펜딩챔프 울산 전력 보강 탄탄
서울도 전 포지션 최고선수 포진
15일 포항 vs 대전 개막전 키오프

프로축구 K리그 감독들은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와 겨울 ‘폭풍 영입’을 한 FC서울을 새 시즌 우승 후보로 꼽았다.

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울산과 포항 스틸러스, 광주FC, 전북 현대 감독과 선수들이 목표와 포부를 밝히는 2025시즌 K리그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원래 개막 미디어데이는 12개 구단이 모두 참여하는 큰 행사다.

그러나 올 시즌 미디어데이는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 참가하는 터라 일정을 맞추기가 빠듯했던 4개 구단을 대상으로만 먼저 진행됐다.

4개 구단 사령탑은 새 시즌 경쟁 구도를 예상해보라는 질문에 대부분 ‘울산과 서울의 2강 구도가 펼쳐질 거라 답했다.

K리그 4연패에 도전하는 울산은 주부로 활약하던 주민규를 대전전까지 티즌으로 떠나보냈으나 국가대표 출신 풀백 윤종규, 장신 스트라이커 허을, 2선 공격수 이희균, 베네수엘라 국가대표 미드필더 라카바 등을 영입했다.

울산보다 큰 폭으로 전력을 끌어올린 팀이 서울이다.

지난해 김기동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지난 시즌을 4위로 마친 서울은 골키퍼를 제외한 전 포지션에 걸쳐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끌어모았다.

공격수 문선민과 미드필더 정승원, 리그 최고 풀백 김진수, 베테랑 수비수 이한도를 ‘폭풍 영입’했다.

박태하 포항 감독은 “우승팀 울산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고 서울도 우승권에 도전할 만한 선수들로 구성됐다”면서 “포



지난해 11월23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 2024 우승팀 울산 HD 김판곤 감독이 선수들에게 행가례를 받고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4·25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참가 K리그 4개팀 미디어데이에서 각 구단 감독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판곤 울산 HD 감독, 박태하 포항 스틸러스 감독, 이정호 광주FC 감독, 거스 포엣 전북 현대 모터스 감독(작은 사진). 연합뉴스

항도 우승권에 가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광주 감독 역시 “서울과 울산이 우승권일 것 같다”면서 “이어 대전, 제주, 전북, 포항이 파이널A에 들 거라고 보고 김천과 강원도 변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중위권에서 어떻게든지 버텨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판곤 울산 감독도 울산이 우승 후보라고 인정했다.

김 감독은 “울산과 경쟁할 팀들을 보면, 서울이 영입을 잘했다 들었고 대전도 그

랬다고 들었다”면서 “전북도 전종의 강화라서 새로운 감독 아래 준비가 잘 되면 상당히 강력한 후보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전북 지휘봉을 잡은 거스 포엣 감독은 말을 아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어느 팀이 상위권이 될 거라 예측하기 어렵다. 다른 팀 감독들이 K리그를 잘 알 테니 잘 답변해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시즌 K리그는 15일 포항과 대전의 경기로 개막한다.

3월1일 개막한 지난 시즌보다 개막 시기가 2주나 앞당겨졌다.

4·5월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토너먼트(사우디아라비아·8강~결승), 6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미국),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한국) 개최 영향으로 이른 개막을 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추운 날씨를 고려해 1라운드 경기는 모두 남부지방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짜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이강인 풀타임 PSG 프랑스컵 8강 안착

2선 공격 역할 특출... 르망전서 2-0 승리

국가대표 공격수 이강인(사진)이 풀타임 출전한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이 르망(3부리그)을 꺾고 쿠프 드 프랑스(프랑스컵) 8강에 올랐다.

PSG는 5일(한국시간) 프랑스 르망의 스타드 마리 마르뱅에서 열린 르망과의 2024-2025 프랑스컵 16강 원정에서 2-0으로 승리했다.

프랑스컵 최다(15회) 우승팀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PSG는 8강에 올라 대회 2연패와 더불어 16번째 우승을 향해 전진했다.

이강인은 4-3-3 전술로 나선 PSG의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볼 배급과 2선 공격 역할을 맡아 풀타임 출전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탤다.

PSG는 전반전 르망의 밀집 수비에 막혀 공격 기회를 살리는 데 애를 먹었다.

오려르 르망은 전반 7분 프리킥 상황에서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테오 에움의 왼발 슈팅이 골대 옆 그물에 꽂히며 PSG 수비진을 당황하게 했다.

PSG의 첫 슈팅은 이강인이 책임졌다. 전반 17분 오른쪽 중원 부근에서 이강인

이 유묘한 프리킥을 세니 마울루가 문전으로 투입했고, 상대 수비수 머리에 맞고 볼이 흘러나오자 이강인이 페널티아크 오른쪽 부근에서 강하게 왼발로 슈팅한 게 골대를 크게 벗어났다.

이강인은 전반 23분에도 왼쪽 코너킥을 차올렸지만, 골키퍼가 공중볼을 잡아내 슈팅 기회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PSG는 마침내 전반 25분 상대 골키퍼의 빌드업 패스 실수를 틈타 첫 득점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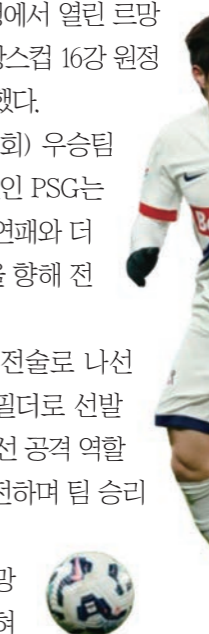
골킥 상황에서 르망의 골키퍼가 페널티아크에 있던 수비수에

게 볼을 내주자 PSG의 곤살루 하무스가 강하게 압박하며 차단했고, 흘러나온 볼을 테지레 두에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PSG는 후반 26분 브라들리 바르콜라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매조졌다.

후반 23분 결승골의 주인공인 두에 대신 교체로 투입된 바르콜라는 그라운드를 밟은 지 3분 만에 골맛을 봤다.

이강인은 이날 1차레 슈팅을 비롯해 95%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며 소파스 코어로부터 7.1의 평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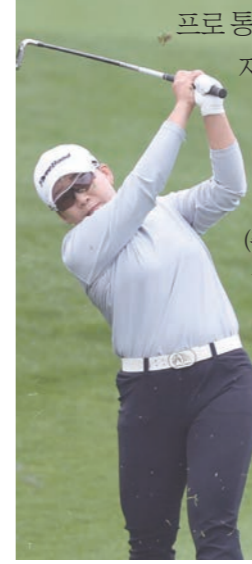


신지애, 오늘 호주 빅 오픈 출전

프로 통산 65승을 거둔 신지애(36·사진)가 호주여자프로골프(WPGA) 투어 빅 오픈(VIC) 오픈(총 상금 20만 호주 달러)에 출전한다. 빅 오픈은 6일부터 나흘간 호주 빅토리아주 바윈헤즈의 서티스비치골프링

크스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서는 호주남녀 투어 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며 12라운드는 비치 코스(파72·6203야드)와 크리크 코스(파73·6181야드)에서 번갈아 치른 뒤 3·4라운드를 비치 코스에서만 진행한다. 호주 aap통신은 5일 이번 대회 출전을 앞둔 신지애와 인터뷰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호주여자오픈에서도 우승한 신지애는 “어느 정도 쉬고 왔으니 또 다른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애는 통산 65승 가운데 5승을 호주에서 따냈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